

## 2020 제41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 심사평

1차 희곡심사를 거쳐 2차 심사 대상작으로 선정된 16편의 작품에 대한 PT심사를 통해 총 8편을 2020년 제41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 참가작품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연극계가 다시 서울연극제에 보이는 관심의 크기를 증명하듯 올해도 1차 희곡심사 대상작이 70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초연과 재연, 번역과 창작극에 구별을 두지 않고 증견연출가와 신진연출가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며 서울연극제라는 공간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일은, 참가작들을 통해 우리 연극이 그 어느 때보다 땅에 발 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사회를 다양한 맥락에서 바라보는 작가와 연출가들의 공통된 시선에서 더욱 암울해진 우리 삶과 그에 대한 연극 창작자들의 책무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이름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한국 연극의 활기찬 동력을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어떠한 변화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서울연극제를 통해 동시대 한국연극이 이동해 가는 좌표 또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 73편의 신청 작품 가운데 8편의 작품을 선정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곤혹스러웠습니다. 최종 선정작 발표는 끝이 났지만 그러함에도,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창작자들 가운데서 몇몇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쉽고 송구한 일입니다. 참가단체의 건승을 빕니다.

2019년 11월 8일

**심사위원**

**남명렬, 이동선, 전정옥**